

2008 산란계산업과 앞으로의 방향

어려움을 발판삼아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다사다난 했던 2008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다.

올해 양계업은 때아닌 조류인플루엔자 파동, 고유가, 고사료 가격으로 인해서 양계인의 갈등과 걱정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뿐만 아니라 현재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물가 파동 등 어려운 경제 여건은 축산인 뿐 아니라 전 국민이 겪어야 하는 어려움이다. 특히 축산인에게는 유래 없는 곡물가격 인상, 유류가격 인상과 더불어 환율까지 급등하는 등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그로 인해 파생되는 결과로 몇몇 대군농장은 경영이 어려워 부도 처리되고 있고, 대부분의 농장마다 경영상태가 그리 밝지 않다.

그러나 이런 악조건인 상황에서도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제일 먼저 양계인 협회 스스로가 희망을 가지고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 생산자들은 생산량을 조절해서 생산량을 줄여주고, 적극적으로 계란 소비홍보를 함으로 인해 소비를 늘려준다. 이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양계산물인 계란 가격은 상승하게 되어 있고, 유통질서를 유지하는 가운데, 양계인들은 안정적인 생산에 몰입할 수 있게 된다.

소비활성화의 일책으로 어떻게 하면 생산량을 줄일 수 있을 것인가? 여러가지 많은 방법이 있다. 부업농과 전업농, 기업농이 각 이에 대처할 자세를 언급해 보겠다.

첫째, 부업농은 양계에만 전념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외 부분에 있어서 스스로가 빨리 일어설 수 있을 것이다. 부가적으로 정부에서 낙농이나 과수처럼 적당한 보상체계를 갖추어 준다면 더욱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본다.

둘째, 전업농은 대한민국 양계산업의 주요 핵심원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양계산업을 책임진다는 각오로써 임해야 할 것이다.



이상호
산골농장 대표



전업농은 국민이 바라는 양계산물 생산시스템을 갖추어야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 FTA에 슬기롭게 대처하여 안심축산, 신뢰 받는 축산이 되어 소비자와 생산자가 함께 한마음으로 우리의 먹거리를 생각하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전업농은 양계장 내부환경은 물론이고 외부환경 또한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이젠 외국에서나 보는 그러한 아름다운 농장풍경을 우리나라에서 외국보다 더 아름다운 향기나는 농장으로 만들어 주어야 할 시점이다. 우리 농장들도 예전에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있던 파리와 악취, 그런 환경이 아니라 계절마다 꽃이 피고 수목이 우거져 볼거리를 제공하는 깨끗하고 관광농장 벼금가는 좋은 농장 만들기에 다 함께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몸단장이라 할 수 있는 작업이 끝나면, 이젠 홍보 측면에도 관심을 가져서 판매유통단계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계란이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우수성, 장점을 방송 광고 다중매체

등을 통해서 열심히 선전한다면 그 효과로 인해 소비가 늘어나게 되는 것은 기정 사실일 것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무 자조금 제도가 이루어지고 우리 전체 농가들은 다 함께 자조금 사업에 동참해야만 한다. 또한 소비촉진 홍보활동에 있어서 소비자에게 잘못된 계란지식과 미처 알지 못한 계란 상식을 알려주는 등 공익성 광고는 계란소비에 더욱더 보탬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업농 모두가 소비촉진을 위해 노력한다면 충분히 농가들은 불경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것이다.

셋째, 기업농은 글자 그대로 기업가들이 경영, 투자하는 대규모 농장이다.

기업농은 계란 생산, 투자와 더불어 난가공식품 개발, 연구실 등을 운영하여, 양계산업의 미래를 개척해야 한다.

기업농은 생산된 산물을 자가소비 할 뿐만 아니라 타 농장 계란도 흡수하여 생산조절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업 양계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해야만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존경받는 기업농이 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투자만 많이 하여 많은 생산량을 시중 유통시킨다면 부업농, 전업농 등 여러 양계업과 어우러지지 못하며, 혼자 독불장군처럼 생산, 유통, 판매 등에 원활하지 않는 흐름으로 인해 양계발전에 도움이 되지도 않음은 물론이고 현재 양계산업에 큰 부작용을 냥게 될 것이다. 이런 결과로 양계업 모두에게 좋지 않은 영

향을 미칠 것이며 양계산업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은 당연하다. 긍정적인 올바른 양계업을 위해서 기업농에서 먼저 솔선수범 노력해서 존경 받는 기업농가로 모범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 어려운 상황에 대처하는 자세로 마지막으로는 작은 부분에 좋은 아이템을 개발하여 브랜드 가치를 높여주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

그 좋은 예로, 며칠 전 신문에 난 롯데호텔 84세 신격호 회장의 일화이다. 현재 나이에도 한국과 일본을 오가면서 왕성하게 활동 중인 신회장이 어느 날 기내 1등실에 배치된 슬리퍼를 보고, 그냥 무심히 지나치지 않고 기업(롯데호텔)에도 적용하고자 직원에게 특별히 일명 신격

호 슬리퍼 개발을 지시하였다. 이렇게 호텔의 차별화로 안락함, 고품격을 갖추기 위해 사소한 발견으로 개발이 이루어지듯 우리도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작은 부분에서도 우리 양계산업의 우수성과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그렇게 노력한다면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양계산업에도 이런 작은 부분부터 큰 부분까지 여러가지 신경 쓸 부분이 너무나 많다. 사양관리, 질병 차단 방역, 백신스케줄 등 한 부분마다 철저하고 세밀한 관리와 경영으로 다가오는 새해에는 전 양계인이 행복한 축산인이 되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부탁 드리는 바이다. 더불어 대한민국 양계인 모두 나날이 발전과 행복한 날이 되기를 기원한다. **양계**

♣ 완벽하게 소독하여 질병에서 해방되자 ♣

계사 청소대 행

환경을 소중히 생각하는 기업

국내 최대 기기 보유

완벽한 소독

남두축산그린

휴대폰 : 011-573-8327
 011-545-0643
팩 스 : 053-325-1556